황폐화된 日 무인사찰, 최초 국유화 전환

日정부 · 종단, 정토종 사찰 콘코지 국유화 결정

박영빈 객원기자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무인사찰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 최초로 무인사찰의 부지를 국유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사찰의 소속종단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종교법인법에 명시된 조항의 최초 실행이라고 전했다. 11월 27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무인사찰 부지의 첫 국유화 사례를 특별보도했다.

일본 문화청과 전일본불교회에 따르면 1951년 종교법인법이 시행된 이래 법인 자격을 취득한 종교단체는 2018년 기준 18만여 개다. 문화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3500여 단체가 실제로는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불활동종교법인' 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청은 "종교법인법이 시행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등록이 복잡해졌으나, 한 때 반사회적인 단체가 종교법인을 이용하거나 법인의 대표임원 등이 탈세나 자산은닉에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휴면 중인 불활동종교법인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화청과 전일본불교회는 "자발적인 법인 해산을 보충하는 해결책으로 국유화의 사례를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종교법인법에서 '처분되지 않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문화청은 "해산이 불가능한 불활동 종교법인의 첫 국가귀속 사례인 만큼 모델케이스가 되는 해결책으로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국유지로 귀속되는 사찰은 시마네(島根)현 오다(大田)시에 소재한 정토종 사찰 콘코지(金皇寺)이다. 정토종에 따르면 콘코지는 15세기 경 창건된 고찰로 1952년 종교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 등록된 신도는 20가구로 2013년 주지스님이 입적한 후 후계 주지의 초빙과 전각 유지관리, 악화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신도회가 2015년에 사찰을 임의 해산했다. 그러나 본당과 종각, 요사채를 포함한 산림 약 12만 평방미터의 재산처분에 관하여 대표자인 주지스님이 입적한 탓에 해산을 결의하여도 청산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뿐인 사찰 국유지화
무인사찰 급증 대안 형태
첫 국가귀속 사례로 주목

지난해 10월 신도회의 임원들은 정토종 시마네현 교구에 도움을 요청, 하야시 케이세키 교구장스님을 청산인으로 내세워 사찰의 정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노후화 되어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된 사찰 시설과 산사태, 산불 등의 관리 책임을 맡을 수 없다는 이유로 타 사찰이나 지자체 등이 모두 인수를 거절, 해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상황이 이어졌다.


황폐해진 법당을 바라보는 前 콘코지 신도. 사찰은 근 8년간 방치됐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이에 정토종과 전일본불교회는 종교법인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콘코지의 부동산을 귀속해 줄 것을 요청, 올해 3월 지자체에서 해산을 인정하고 부지를 국유지로 삼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정토종은 약 100만 엔을 출자, 자자체와 현장을 점검하고 붕괴 시 주변에 위험영향을 미치는 종각과 요사채는 철거, 붕괴 시에도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본당은 내부의 불상과 불구를 정리 후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마네현 측은 국유화에 앞서 요사채에 남은 생활도구들과 종각의 범종, 묘지 등의 처리는 기존 신도회와 종단 측의 처분을 요구했다. 정토종 측은 지난 8월 말 묘지에 대한 파묘와 이장의식을 진행했고, 남은 불상과 불구, 범종 등을 이운했다. 신도회 측은 업체에 위탁하여 요사채의 생활집기를 처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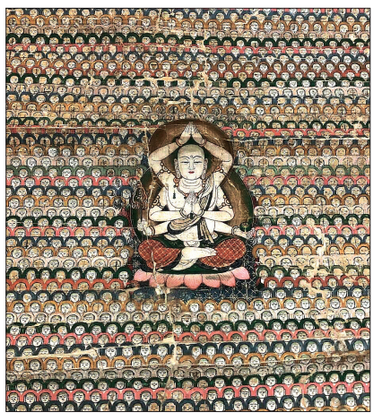
철거와 경내정리작업을 도운 콘코지 신도대표 오타니 후미오 씨는 "집안 대대로 귀의했던 사찰이 없어지는 것은 슬픈일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계에 단 하나? 육비 지장보살 만다라 발견

15세기 경 작품으로 추정
전례 없는 이색적인 도상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지장보살과 그 주변을 둘러싼 1만여 분의 작은 지장보살. 이런 희귀한 '지장보살만다라' 가 발견됐다. 11월 2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교토 신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이 놀라운 발견을 특별보도했다.

만다라가 발견된 곳은 사가(滋賀)현에 소재한 천태종 사찰 쵸쥬지(長壽寺). 8세기 초반에 건립된 천년고찰로 한때 24곳의 산내암자를 거느렸던 대찰이다. 긴 역사에 걸맞게 쵸쥬지는 경내에 국보와 중요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육비지장보살만다라(六臂地蔵曼荼羅)' 는 지난해 쵸쥬지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발견됐다.


새롭게 발견된 '육비지장보살만다라' . 일본에서도 전례가 없는 불화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쵸쥬지의 주지 후지시 료도 스님은 "선대 주지스님에게 이야기는 들어 '특이한 지장보살도가 있다' 라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모습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 중 사찰에서 소장 중인 만다라들이 화제에 오르면서, 스님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학예사에게 지장보살도를 이야기 했다. 절의 창고 안쪽에 방치 중이던 두루마리를 발견, 조사원들 앞에서 펼치자 만다라가 세상에 드러났다.

조사를 맡은 현립고고박물관 아마시타 리츠 학예원은 "팔이 6개인 육비지장은 지장보살이 6도를 구제하는 모습으로, 드물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만다라로 그려진 것은 전례가 없는 작품이다. 일본에, 세계에 단 1장뿐인 그림일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만다라는 비단에 종이를 배접한 견지(絹地)에 그려졌으며 가로 84cm, 세로 134cm. 작풍에서 15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6개의 팔을 가진 6비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주변에 1만 1851분의 작은 지장보살들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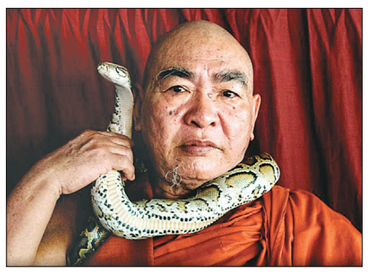
지장보살은 일반적으로 두 팔을 지닌 승형(僧形)에 가사와 장삼을 수한 모습으로 그려지나 만다라에 묘사된 지장보살은 삭발한 머리를 제외하곤 영락과 천의를 입은 전형적인 보살형의 모습으로 지물은 일반적인 석장과 보주를 들고 있다.

쵸쥬지 측은 오랜시간 동안 방치되어 훼손된 만다라를 복원해 대중에 공개할 것을 발원, 전체 복원 비용에 해당하는 약 100만 엔(한화 약 1천만 원)은 대중들의 보시로 모금할 예정이다. 료도 스님은 "그림에 그려진 수많은 지장보살님들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정재를 모아 복원하는 것이 뜻깊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500여년 넘게 조용히 전해온 만다라에 담긴 마음을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현재 쵸쥬지에선 만다라 복원을 위해 육비지장 관련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을 통한 모금도 검토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동물에게도 자비행…비단뱀 구하는 스님

미얀마 월라타 스님 '화제'
모든 비용 보시금서 충당


구호중인 미얀마 비단뱀과 포즈를 취한 월라타 스님. 사진출처 = 로이터통신

미얀마 양곤에 불법 포획된 뱀을 구호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12월 4일 '로이터 통신' 은 미얀마 양곤에서 비단뱀 구호활동을 펼치는 스님을 보도했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세익타 툭카 테투(Seikta Thukha Tetoo)사원에 주석하는 월라타 스님은 5년 전부터 불법 포획되어 죽거나 암시장으로 팔려가는 미얀마 비단뱀 구호를 시작했다. 미얀마 비단뱀은 세계 5대 대형 뱀 중 하나로, 멸종위기 취약종이나 온순한 성격과 쉬운 사육 난이도로 파충류 애호가들에겐 반려동물로 선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밀수, 혹은 가죽을 얻기 위해 자주 불법 포획되고 있다.

월라타 스님은 "사람들은 보통 뱀을 잡으면 돈을 벌기 위해 밀수꾼을 찾거나,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곤 한다. 그러나 살생이라는 악업을 쌓기 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선업을 쌓고, 자연생태계 순환을 보호하는 데 도와달라"며 비단뱀을 구호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사원에서 뱀 임시보호소가 시작된 이래 주민들과 소방서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포획한 뱀을 월라타 스님에게 데려오고 있다. 스님은 버마 비단뱀을 비롯해 코브라 등의 뱀을 구호하여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살핀다. 뱀의 먹이로는 한 달에 약 300달러가 소요되며 모두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다.

월라타 스님은 최근 흘로가(Hlawga)국립공원에서 열린 방생법회에서 "뱀이 대자연 속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다시 포획될까 걱정된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금 포획되면 죽거나 암시장으로 팔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조동종 선불교協, 사형제 폐지촉구

현재 미국은 전체 50개주 가운데 27개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조동종 선불교협회(SZBA)' 가 연방정부 법무부를 향해 사형제 폐지와 사형 집행 중단 성명서를 발표해 화제다. 12월 4일, 불교전문매체 '라이온즈 로어(Lion's Roar)' 는 SZBA가 발표한 '사형제 폐지, 사형 집행 중단 성명서' 를 인용해 보도했다.

SZBA의 성명은 지난 11월 25일 '뉴욕 타임즈' 에서 보도한 '미 연방 법무부의 다양한 사형 집행법 허용 규정' 에 대한 반발이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총살 및 전기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형 집행 방법을 허용하며 연방 사형수 3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의 취임 전 연방 사형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며, 새 규정은 1927년 이후 연방 사형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SZBA는 성명서에 "부처, 예수, 무함마드, 간디 등 주요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불살생(不殺生)' 을 강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종교인으로서 국가가 후원하는 살인과 처벌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시작했다. 이어서 "사형제는 폭력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잔인하게 만든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어떤 증거나 통계도 보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믿음과 자비를 가진 자들이 사랑과 구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의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 변혁은 언제나 가능하고 상처입은 사람도 변화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일의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ZBA는 초기경전인 〈담마파다〉를 인용해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 "담마파다 129절에는 '모두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제 몸에 견주어서. 남을 죽이지 말라. 죽이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슴에 안고 살기를,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성명서에 대해 다른 종교들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